



이 경 원  
(문화일보 논설위원)

# 양돈업과 시장경제

## 1. 자유경제와 경쟁

자유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경쟁이라는 영양소를 먹어야 건강하게 자란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여 온 경제제도가 바로 자유경제체제이며, 그 과정에 경쟁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 정도의 경제성장이나 마 이루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문화와 비슷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분단이후 북은 남과 달리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해온 반면, 남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해 왔다. 이와같은 경

제운영방식간에는 처음 얼마 동안 별 차이가 없는 듯 했지만,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 볼 수 있는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초기에는 좀 혼란스러워 보인다. 반면에 계획경제 -정부가 모든 것. 즉 무엇을, 얼마나, 누구를 위해, 어떻게 생산하는가를 결정하여 중앙통제 아래 일을 처리하는 경제제도-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같듯이 보인다. 그러나 잘 될 듯한 계획경제는 부실해지고 혼란한 듯한 자유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승산이 있게 된다.

물론 자유경제에서는 사유재

산이 인정되어 창의성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면 내 것이 많게 된다는 동기부여가 있기도 해서이지만, 자유경쟁을 통해 승자생존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전체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자유경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쟁이라는 두 바퀴에 의해 그 성장발전이 도모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자유경제는 효율성이 낮아 지속적 전진이 어렵다. 승자생존의 경쟁원리는 냉혹하여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이 없는 사회는 전체를 효율성이 낮은 낙후된

사회로 만든다.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각 개체는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어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 2. 양돈업의 새로운 도전

우리나라 양돈업이 당면한 수입개방화라는 과제는 그동안 누려왔던 비교적 안이한 시장 환경에 비해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다.

양돈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축산업 분야에서의 수입 자유화는 '93년에 우유(시유)와 냉장닭고기(절단육)가 수입개방 품목에 추가되어 그 자유화율이 80.7%나 되었다. 더구나 '94년에는 냉장돈육, 냉장닭고기 등이 수입 자유화될 예정으로 있어 자유화율이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축산물의 수입 자유화가 거의 안되었던 '87년 이전에 비하면 매우 도전적인 변화이다. 어찌보면 '70년대와 '80년대에 우리나라 축산사료업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초고속 성장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처럼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식량부족 국가이다. 그런 처

지에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는 축산물의 수요를 늘려왔고, 그에 따라 축산사료산업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70년에 1인당 소비량이 2.6kg밖에 안되던 돼지고기는 '90년에 11.8kg으로 4.5배나 늘었는가 하면, 닭고기는 약 3배, 계란은 2배, 우유는 무려 27배나 늘어났

“

우리나라 양돈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량껏 뛰 수 있도록 양돈관련분야의 여러 기능을 자율화 하는 일이다.

”

다. 여기에다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보면 별로 존재가 미미하던 '60년대의 축산사료연관산업이 오늘날에는 연간 매출액이 9조원을 넘는 중요 산업으로 등장하게 된 연유를 알만도 하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계속 팽창하고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원료(주로 사료곡물)는 외국에서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었으니 이들 분야에는 상당한 이윤의 기회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축산 사료산업은 어렵지 않게 성장을 이룬 것이다.

농업하면 넓은 의미로 전통적인 전답농은 물론 양축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양축업은 대부분이 수입된 종축을 번식시켜 퍼뜨린 축종들을 수입된 사료를 먹여 기르니 일종의 수입가공업이라 부를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수입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인사들은 국산이라도 축산물 불매 운동마저 벌이려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은 부인 못할 것이다. 하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35%밖에 안되어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계산할 때 경우에 따라 35%만 순수국산노동력으로 계산하는 예도 있지 만서도 말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축산업이 당면한 수입자유화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경우 부품을 수입하여 일부 국산부품을 합쳐 조립을 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쓸 것이냐 또는 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해다 쓸 것이냐 하는 문제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입된 완제품보다는 국산조립품을 쓰는 것이 한국

에 고용효과도 있고 하니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언제나 값도 싸거니와 품질도 좋은 물건을 찾는다. 이에 예외가 없다. 시장에서의 성패는 값과 품질에 달려있다. 그리고 값과 품질상의 성패는 생산성에 많이 좌우된다.

생산성만 높다면 수입자유화에 대해 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되면 국내시장에서의 수입품과의 경쟁에서는 물론, 더 나아가 수출시장에서조차 승산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돈육생산성을 보면 대만, 일본, 덴마크 등보다 너무 낮다. 예를 들면 한국의 생산성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일본 대만, 덴마크는 각각 139, 131, 132로서 우리나라보다 무려 30% 이상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정영철, 유전자원 대표이사). 그런데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사료원료를 수입해다 쓰는 나라들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돈육수입국가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만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 국내시장에서 또는 해외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자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돈육수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위 양돈불황시에 국내 가격 조절을 위해 일본 등지에 싼 값에 수출한 예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어찌보면 일본 소비자들에게 싼 값에 돈육을 공급해 주기 위해 한국의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치르는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

### 3. 도전은 새로운 기회

사실 국내시장에서 수입돈육과 먼저 이길 수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지, 국내시장에서 수입돈육에 밀린다면 수출은 불가능하다. 어찌 집안마당에서 지는 사람이 밖에 나가 이기겠는가. 이는 마치 국내에서만 경쟁했거나 또는 외국선수를 불러다 시합 한번 못해본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가면 승산이 적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입자유화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값싼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양돈농가는 비용절감과 생산성제고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수입을 자유화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구조는 더 팔

기 위해 더 사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국제화 또는 개방화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러니 어차피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산업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정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다. 즉 양돈농업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가 무엇을 보호하고 보조해야 한다는니 하는 등의 의견이 우선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보호와 보조는 일시방편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어찌 보면 이제까지 시행해 온 시책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축산물이나 사료의 수입이 금지되어 온데다, 사료공장이나 양돈장도 인허가 없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 그외에도 무슨무슨 진흥자금이니 하는 명목으로 여러 형태의 보호조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돼지값이 떨어지자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두수가 얼마이니 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각 농가당 일정비율로 돼지를 도태하라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인위적인 조절이 없었더라면 양돈업이 불경기일

때 비효율적인 생산자가 도태되어 전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인위적 조절은 이와같은 생산성의 제고없이 돈가만 올려 한국양돈의 경쟁력만 뒤지게 만들곤 했던 것이다.

이런 과거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 오늘의 양돈업이다. 우리의 비육돈 두당 생산비를 보면 12만 4천원으로 대만의 10만 7천원, 덴마크의 9만5천원에 비해 20% 내지 30% 씩이나 비싸다(자료 : 탁태영, 축산시험장).

#### 4. 정부가 할 일과 업계가 할 일

물론 우리나라 양돈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일로는 양돈관련산업, 즉 사료, 양돈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하향조정 또는 영세화하는 등의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량껏 뉘 수 있도록 양돈관련분야의 여러 기능을 자율화하는 일이다. 여기서 양돈관련분야란 사료산업같은 투입물산업에서부터 최종제품이 가공·판매되는 과정까지의 제반분야를 의미함은 물론이다.

자율화란 누구든지 양돈을 하고 싶으면 시작할 수 있고 각

농가가 능력껏 좋은 질의 돈육을 낮은 비용에 생산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사료도 배합사료로서나 사료원료로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며, 계열화도 그들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단지조성 또는 자조금제도의 도입도 그들 자신의 판단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일이다.

물론 도체등급제의 도입, 부정축산물에 대한 감독기능, 품질보증제의 도입, 환경과피의 금지, 양돈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보급, 금융 등에서 불공평성의 제거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에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 5. 우리의 태도

경쟁력 있는 양돈업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이윤추구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체질강화가 중요하다. 국제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나라 양돈업의 활로는 양돈업 분야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시장에서나 수출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돈육제품들과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요즘 미·일간의 무역마찰은 심각하다. 이에 대해 감정적이고 보수적인 일부 미국인들은 대일본무역적자를 보며 비분강개하여 또다시 일본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고까지 하기도 한다.

어찌보면 그동안 미국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게으른 자만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의 도전에 자극을 받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 몇해동안 미국의 자동차 결함을 줄이는 등 미국자동차의 품질개선과 생산성 제고 등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를 보며 일부 미국인들은 훗날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이여, 고맙다. 우리들은 당신들의 경쟁적 도전이 필요했었다」라고.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많다. ■

